

대학생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 경남 및 전북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

Stereotypes of the Single Women Held by University Students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Professor : Yeong Sug Yi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Professor : Kyung Rhan Park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II. 관련문헌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tereotypes toward the single women(30-49 age) held by university students. Stereotypes toward the single women were examined at two levels: to assess students' beliefs about the traits of single women and to categorize the traits into stereotyp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Students reported 99 traits associated with the single women.
- 2)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the trait groupings revealed two high-level clusters: a cluster of 45 positive traits and a cluster of 54 negative traits. Within the positive and negative clusters, 10 middle-level categories, 4 positive categories(enjoy living affluently, independence-oriented, progressive, openhearted), and 6 negative categories(lack of vitality, pitiful, self-centered, picky, childish, self-

defensive) were identified. This results suggested that young adults believed negative stereotypes are more typical than positive ones.

주제어(Key Words): 고정관념(Stereotypes), 긍정적 특성(Positive Traits), 부정적 특성(Negative Traits), 독신여성(Single Women)

I. 연구의 목적

독신여성이란 흔히 사회적 결혼적령기를 지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독신은 1960년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심, 물질적 가치에서 인간주의적 가치로의 전환, 그리고 70년~80년대 여성과 남성 해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Steinmetz, et al., 1990), 여성의 교육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독신여성의 수가 확대되어 왔다(Olson & DeFrain, 1994). 이에 따라 최근 독신생활은 결혼의 한 대안적인 삶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점차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다(김애순, 1994).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호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의 적응을 반영하기도 한다(Benokraitis, 1999). 따라서 모든 것이 표준화되고 획일적이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다양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각에서 독신의 생활스타일을 선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점차 여성들이 결혼연령을 늦추고 있거나,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42%는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간주하는 결혼관으로 바뀌고 있다(조선일보, 2000. 12. 28). 또한 최근자료(통계청, 2001)에 의하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독신가구의 증가율은 무려 35.4%에 달하며,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독신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30대·40대의 독신가구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2000년 현재 남성독신가구 보다는 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신의 증가에 대해 박충선(2002)은 독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이 강조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삶

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독신이 새로운 삶의 선택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혼자 사는 독신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인 관심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독신을 주제로 한 연구들(옥귀주, 1999; 김미숙, 2001; 전옥실·이영숙, 2001; 김순옥, 2002; 박충선, 2002; 변화순 등, 2002; 심영, 2002; 윤소영, 2002; 장현숙, 2002)이 발표되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주로 독신자의 생활상태를 다루고 있으며, 독신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독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을 진정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결혼적령기를 지나 '노처녀'의 독신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압박이 많았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에는 종종 독신여성들을 '화려한 싱글' 또는 '자유로운 솔로' 등의 표현으로 많이 언급되거나 지칭되고 있다. 독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시각은 주요 사회제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강화 보급되어 독신여성에 대한 과장된 편견이나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독신여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Stein, 1988). 따라서 우리 사회가 독신 형태를 진정으로 하나의 선택적인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신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 독신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 사

회의 고정관념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특신의 성공적인 생활적응은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특신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어느 연령층보다 개방적이고 비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인지하는 특신여성의 특성은 무엇이며, 특성은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특신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특신여성들의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결혼여부의 선택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특신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문헌의 고찰

1. 특신에 대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또는 과장된 신념으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며(Palmore, 1999), 한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에 의한 선입관이 고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그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사실과 축소된 반응을 함으로써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특신생활의 장점은 구속받지 않는 생활, 자유로움, 직업기회, 경제적 충족, 개인적 발달, 다양한 성적경험, 변화가 있는 즐거운 생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경제적 자율, 배우자·자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독립, 활기찬 생활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Carter & Sokol, 1993; Stein, 1981; Stein, 1988). 조애저와 공세권(1992)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은 특신생활의 좋은 점으로 대부분 행동·생활의 자유와 직장 및 사회활동의 자율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특신생활의 이점과는 달리 관련문헌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신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임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Stolk와 Brotherton(1981)은 48쌍의 부부들이 완성한 “나는 30세 이상의 특신여성을 _____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노처녀’, ‘실폐자’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Etlaugh와 Malstrom(1981)의 연구에서도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특신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안정적인 면과 신뢰적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보편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특신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며, 또한 대다수의 특신은 결혼을 원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있으며 불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Knox(1985)는 가장 흔히 지적되는 특신자들의 고정관념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외로운 패배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 연구(Cargan, 1981)의 조사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에 해당되는 특신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함께 할 사람이나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느끼는 정도”가 기혼자들(10명중 1명)보다는 특신들에게서(10명중 3명)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특신은 우울하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따라서, 특신을 외로운 존재로 보는 것은 특신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혼자라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일 뿐이다. Rollins 역시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과 동의어가 아니며, 따라서 문제는 “특신들이 아니라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특신이 불행하고 외로울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특신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결혼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Olson & DeFrain, 1994 재인용).

한편 Cargan과 Melko(1982)는 특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속설로서 다섯 측면을 지적하였다. 즉 특신자는 어머니의 치마 자락에 매달려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특신자는 행복하며, 그리고 결혼하기에는 무언가 결

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독신자의 부모와의 관계는 기혼자의 부모와의 관계와 별 차이가 없으며, 기혼자들보다 지역사회봉사에 더욱 적극적이며, 일부 전문직 독신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기혼자들의 재산수준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낮은 경향이며, 독신자는 영화·레스토랑·클럽과 같은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더욱 우울하고 외로우며, 그리고 대부분은 결혼하는데 결점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독신남녀들은 종종 '성숙하지 못하거나',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독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비하적이다. 그러나 최근 독신집단으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취지향적이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며 (Olson & DeFrain, 1994), 독신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너그러워졌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김애순, 1994). 독신여성들 스스로도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졌으며, 독신남성과 차별 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충선,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독신자들의 몇 가지 심리적 특성이나 성격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독신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모든 특성 및 그 유형의 범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2. 독신의 실제

독신의 실체는 어떠한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독신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신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54.4%), '학업이나 일(직업)' (20.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이나 결혼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경우는 소수에(4.9%) 지나지 않았다(박충선, 2002).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때문이며, '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인 경우는 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조선일보, 2001. 9. 5)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50.0%, '보통이다'가 38.8%, 그리고 '불만이다'는 11.3%로 나타났으며, 여성(62.5%)의 만족도가 남성(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충선, 2002). Rollins((Olson & DeFrain, 1994 재인용) 역시 독신자의 65%는 비교적 행복하거나 또는 보다 행복한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장현숙(2002)의 연구에서는 독신생활을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으며, 또한 독신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독신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유로움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이나 자기개발, 개인적 성숙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미숙, 2001; 박충선, 2002).

독신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사회적이다. 즉 혼자 산다고 하여 감정의 조절 및 통제가 때때로 안되어 변덕스러움을 보인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나이 먹어간다는 사실에도 비교적 초연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자 살고 있지만 이성친구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혼자 사는 독신이라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별히 자기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장현숙, 2002).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성에 대한 자유로움은 보이지 않았다. 독신들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동아일보, 2000. 8. 23).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는 전체 독신자의 1/4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적 충동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부분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숙, 2002).

독신여성의 소득규모는 200만원 미만인 68.0%에

달하며(심영, 2002). 대부분 2인 이상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향이었다(변화순 등, 2001). 또한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독신 여성은 35.8%인 반면 40.7%는 보통, 23.4%는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심영, 2002).

독신들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용은 기혼자들에 비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적었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나(윤소영, 2002), 자유롭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리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한편, 독신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으로는 직업의 안정성(39%)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삶에 대한 가치관(19%), 이성문제(16%), 가족문제(12%)의 순으로 고민을 지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 9. 5).

이상을 요약해보면, 독신자들은 대체로 생활의 자유로움과 자기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감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성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소득이 충족한 편이 아니며, 여가생활도 소극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독신자의 실제측면이 사회의 인식측면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독신자의 인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조사과정에 따라 두 번 선정되었다.

독신여성의 특성을 산출하는 제1조사의 대상은 전북과 경남 소재 대학교의 학생 42명이었다. 이들은 가족관련 강의 수강생 중 남학생 16명과 여학생 26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만 18~27세(평균 19.4세)이었다.

독신여성의 특성을 분류하는 제2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남학생 19명과 여학생 13명으로 모두 32명이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대학교의 제 1조사에 참

여하지 않은 학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만 19~27세(평균 23.4세)이었다.

2. 조사과정

1) 조사1: 독신여성의 특성을 산출하는 과정

Schmidt & Boland(1986)가 사용한 방법에 따라 2002년 9월 13일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30대 중반~40대 여성을 '독신여성'이라고 규정할 때 독신여성의 전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다음 한 단어나 짧은 문구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독신여성의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독신여성에게 속한 것으로 들어왔던, 보아왔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묘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라고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든 또는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서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결과, 피험자들은 명사나 형용사로 된 한 단어,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 짧은 구절, 또는 간단한 문장으로 독신여성의 특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평균 13.4개(6개~31개)를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내용과 고정관념 특성에 반영될 수 없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서술한 기록을 각자 정리 분류하여 독신여성 특성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논의·결정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서술한 낱말 가운데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가장 함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단어로 대체하였고(예: 매물찬, 정이 없는, 냉정한→냉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유사한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술을 자주 마시는→술·담배를 많이 하는)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사(예: 과거사→과거가 있는)나 짧은 문구(예: 신경질을 많이 낸다→신경질적인)는 간단한 형용사로 바꾸었다. 또한 모호한 표현이나(예: 굉장한),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예:

사회적 연합), 그리고 평가적인 표현(예: 마음에 안 듦)으로 판단되는 서술들은 제외시켰으며, 영문표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어 포함시켰다(예: 히스테리가 있는 → 신경질적인).

이러한 표현의 결정은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독신여성의 특성은 99개로 산출되었다. 신뢰되는 두 연구자가 각자 산출한 특성의 일치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88.8%로 나타났다.

2) 조사2: 독신여성의 특성을 분류하는 과정

독신여성특성 분류작업을 위해 우선 조사1에서 산출된 99개의 독신여성특성을 하나씩 적은 99장의 카드와 '기타'라고 적은 1장의 카드를 포함하여 총 100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이를 2002년 12월 26일에 조사1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32명의 피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독신여성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들을 하나의 집단 속에 집어넣어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어떤 한 특성이 하나의 집단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집단 모두에 넣도록 하였으며, 반면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기타'라고 적혀진 카드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만일 두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두 집단에 걸쳐 놓여지며, 세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세 집단에 모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되는 집단의 수는 참여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끝마칠 때까지 여러 번 바꾸어 재시도하여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개인에 따라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분석방법

독신여성의 특성을 산출하는 과정은 질적분석하였고,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독신여성 자료를 99*99 행렬표에 각각 배치하여 위계적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행렬표는 같은 두 특성이 동일한 집단에 놓여지는 빈도수로 작성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상끼리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독신여성의 특성

대학생들이 서술한 독신여성특성은 대체로 외모나 능력 등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체적 특성, 인성 특성, 인지적 특성, 역할 특성,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특성, 그리고 평가적인 반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산출된 99개 특성 가운데 대학생들의 20% 이상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특성은 높은 빈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2. 독신여성특성의 범주

독신여성의 특성으로 산출된 99개 특성을 범주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수준에서 2 집단, 중위수준에서 10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상위 두 집단은 45개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긍정적 군집과 54개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

<표 1> 대학생들이 서술한 독신여성의 특성 n=42

특성	빈도	%
외로운	34	80.6
신경질적인	19	45.2
능력있는	17	40.5
자유스러운	16	38.1
경제적 능력이 있는	16	38.1
불쌍한	14	33.3
고집스러운	12	28.6
깔끔한	12	28.6
이기적인	12	28.6
간간한	11	26.2
일에 열중하는	11	26.2
콧대가 높은	11	26.2
자기중심적인	9	21.4
당당한	9	21.4

하는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위 10 집단은 4개의 긍정적 군집과 6개의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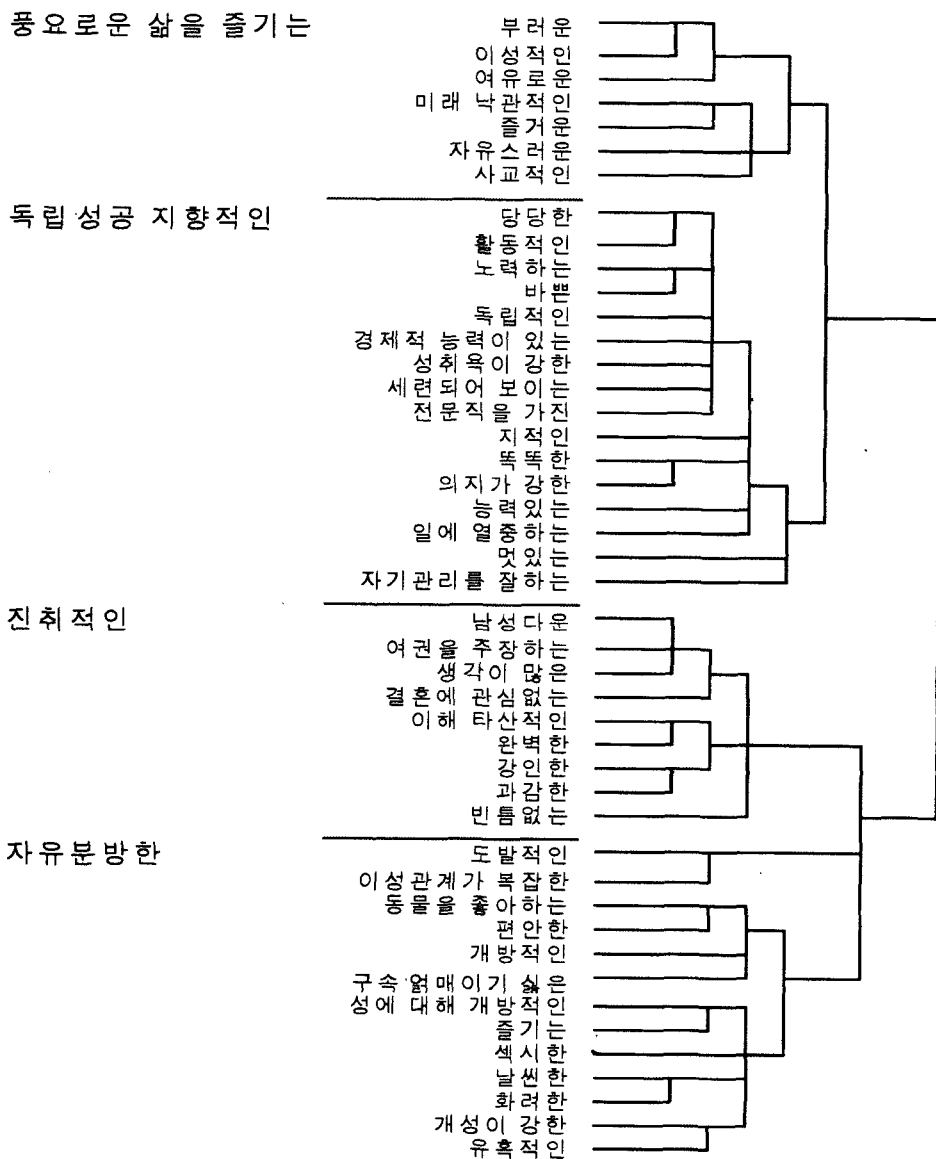
우선 대학생들이 독신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전체 99개 특성 가운데 54개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독신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정관념(45.5%)보다 부정적 고정관념(54.5%)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옥실·이영숙, 2001)에서 청소년들은 독신의 선택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며 또한 독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독신 생활에 대한 보상이 결혼에 대한 보상보다 더 크거나, 독신생활에서 인식된 비용이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라고 인식한다는 것(Scanzoni & Scanzoni, 1981)을 본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대학생들은 독신에 드는 비용이 결혼에 드는 비용보다 많다고 인식하며 따라서 독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99개 특성을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생동감이 부족한', '한심스러운', '자아중심적인', '까다롭게 구는', '유아적인', '자기방어적인'은 부정적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독립·성공 지향적인', '진취적인', '자유분방한'은 긍정적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10개의 군집을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세대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진취적인'이나 '자유분방한'에 속하는 특성들이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볼 때만 긍정적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가진 54개 부정적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6개의 부정적 군집은 '생동감이 부족한', '한심스러운', '자아중심적인', '까다롭게 구는', '유아적인', '자기방어적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제 1군집은 답답한, 불쌍한, 능력없는, 뚱뚱한, 우울한, 궁상맞은, 매력없는, 지저분한, 초라한, 게으른,

자신감이 부족한, 못생긴, 심심한 등 13개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동감이 부족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2군집은 결혼시기를 놓친, 과거가 있는, 남자가 싫어하는, 은둔생활을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랑에 실패한, 위험한, 무뚝뚝한, 순수하지 못한 등 9개의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므로 '한심스러운'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3군집은 의심이 많은, 자기중심적인, 신경질적인, 까탈스러운, 간간한, 공주병기질이 있는, 잘난척하는, 독단적인 등 8개의 특성이 해당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위주의 삶을 더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므로 '자아중심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4군집은 고집스러운, 외로운,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성혐오적인, 참견을 좋아하는, 마른, 결벽증이 있는 등 7개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특성이므로 '까다롭게 구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5군집은 소심한, 어리석은, 수다스러운, 내용떠는, 아이같은 등 5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모두 어른답지 못한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유아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6군집은 거칠은, 팔자세보이는, 냉정한, 독한, 꼼꼼한, 날카로운,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자기도취적인, 콧대가 높은, 깔깔한 등 11개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은 주위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특성들이므로 '자기 방어적인'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부정적 고정관념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독신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Stok & Brotherton(1981) 및 Etaugh & Malstrom(1981)의 결과와 유사함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이 독신여성에 대해 갖는 긍정적 고정관념의 4개 군집에는 <그림 2>에서 보듯이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독립·성공 지향적인', '진취적인', '자유분방한'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제 1군집은 부드러운, 이성적인, 여유로운, 미래낙관적인, 즐거운, 자유스런, 사교적인 등 7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풍요롭게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성이므로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이라고 명명되



<그림 2> 대학생의 독신여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었다. 긍정적 제 2군집은 당당한, 활동적인, 노력하는, 바쁜, 독립적인, 경제능력이 있는, 성취욕이 강한, 세련되어 보이는, 전문직을 가진, 지적인, 똑똑한, 의지가 강한, 능력있는, 일에 열중하는, 멋있는,

자기관리를 잘하는 등 16개 특성으로 이는 독립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독립·성공 지향적인'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3군집에 포함되는 특성은 남성다운, 여권을 주장하

는, 생각이 많은, 결혼에 관심없는, 이해타산적인, 완벽한, 강인한, 과감한, 빈틈없는 등 9개 특성으로 이는 모두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특성에 해당되므로 '진취적인'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4군집은 도발적인, 이성관계가 복잡한, 동물을 좋아하는, 편안한, 개방적인, 구속이 싫은, 성 개방적인, 즐기는, 색시한, 날씬한, 화려한, 개성이 강한, 유혹적인 등 13개 특성이 포함되는데 이는 모두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개방적성향의 사람이 가지는 특성이므로 '자유분방한'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긍정적 고정관념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독신생활의 편리한 점으로 행동·생활의 자유, 생활의 자율성 등(조애저·공세권, 1992; 김애순, 1994; 옥귀주, 1999)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의 독신여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젊은이가 독신여성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독신여성에게 부여하는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독신여성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재를 한심스럽게 살아가며, 다양한 삶을 경험하지 않아 성숙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까다롭게 굴거나 자기방어적, 또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유아적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신여성이 혼자서 사는 생활은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생각 역시 전통적으로 많이 가진 생각이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이 일반화되면서 독신여성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자유주의자로 특징지우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대학생들이 독신여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독신여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독신여성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점은 독신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고정관념보다 적다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족중심적인 것을 우선으로 했던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독신여성에 대한 가치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아직까지도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우세한 우리사회에서는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서 독신자 자신이 독신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며 불만스러움을 지적한 경우는 소수인 것만 보아도(박충선, 2002) 서구의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이와 같은 독신여성들 자신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반인의 독신여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독신여성들의 실제간에 불일치 되는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신여성들이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성 개방적일 것이라는 지각,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것이며,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인식 등은 독신자들의 실제 생활을 조사한 연구들(변화순 등, 2001; 심영, 2002; 윤소영, 2002; 장현숙, 2002)의 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독신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독신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독신여성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녀 대학생 42명에게 독신여성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방형질문의 조사와 조사된 단어를 32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동일 독신여성의 특성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이 전형적인 독신여성의 특성으로 서술한 단어는 총 99개였다. 특성의 내용은 신체, 인성, 역할, 심리적 안녕, 평가적 반응 및 인지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로운”(80.6%), “신경질적인”(45.2%), “능력 있는”(40.5%) 등에 대한 서술빈도가 가장 많았다. 둘째, 독신여성 특성에 대한 군집화 분석결과 긍정적 특성 군집(45개)과 부정적 특성 군집(54개)으로 나뉘어졌고, 두 군집 내에 10개의 중간 수준의 군집 즉 4개의 긍정적 특성 군집과 6개의 부정적 특성 군집이 산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고정관념은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독립·성공 지향적인’, ‘진취적인’, ‘자유분방함’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고정관념은 ‘생동감이 부족함’, ‘한심스러운’, ‘자아중심적인’, ‘까다롭게 구는’, ‘유아적인’, ‘자기방어적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독신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로부터 우리 사회가 독신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현대 사회에서 독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만을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독신을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 독신은 다양한 생활방식 중 하나일 뿐이므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은 독신을 다양한 생활유형의 하나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며 독신을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인정하게 되어, 독신 생활을 특별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것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특성도 상당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독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나온 결과이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독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많은 지지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고정관념의 어느 측면은 다소 과장되거나 낭만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예: 자아중심적인) 또는 긍정적 고정관념(예: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의 어느 측면은 독신여성의 실태를 다룬 기존연구의 결과(예: 김미숙, 2001; 장현숙, 2002 등)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과장되거나 낭만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추후독신여성의 실제와 독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간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늘어나고 있는 독신들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는 독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 면에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독신들 역시 사회에서 인식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주의가 요망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결혼이나 독신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대학생 이외 다양한 청년층의 독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노년층을 포함한 다른 연령층의 독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청년층의 것과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미숙(2001). 혼자가 좋아: 독신가족. 이동원 외

- (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서울: 양서원. 149-175.
- 김순옥(2002).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73-184.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고려원미디어. 동아일보 2000년 8월 23일자.
-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옥귀주(1999). 미혼독신자의 생활 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 전옥실, 이영숙(2001).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관한 연구. *가정교육학회지*, 13(3), 59-68.
- 조선일보(2000). 12월 28일자.
- 조선일보(2001). 9월 5일자.
- 조애저, 공세권(1992). 최근 한국여성의 결혼행태, 1991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Benokraitis, N. V. (1999). *Marriages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Cargan, L. (1981). Singles: An examination of two stereotypes. *Family Relations*, 30(3), 377-385.
- Cargan, L., & Melko, M. (1982). *Singles: Myths and Realities*. Sage.
- Etaugh, C., & Malstrom, J. (1981). The effect of marital status o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801-805.
- Konx, D. (1985). *Choices in Relationships: An Introduction Marriage and the Family*(4th ed.). West Pub. Co.
- Olso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 Co.
- Palmore, E.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Scanzoni, L. D. & Scanzoni, J. (1981). *Men, Women, and Change*. Black Dot, Inc.
- Schmidt, D. F. & Boland, S. M. (1986). The Structure Of Impress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 Stein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ein, P. J. (1988).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In Wells, J. G.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4th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 Steinmetz, S. K., Clavan, S., & Stein, K. F. (1990). *Marriage and Family Realiti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 Row, Pub.
- Stolk, Y., & Brotherton, P. (1981). Attitudes towards single women. *Sex Roles*, 7(1), 73-38.

(2003년 6월 26일 접수, 2003년 9월 26일 채택)